

라켓 들고 갔다 연성 높아…나주시립테니스장 ‘코트 전쟁’

빛가람혁신도시, 테니스 열풍…동호회 vs 개인 테니스장 이용 갈등
한전 등 공공기관 예약제 운영…시립테니스장, 이용 규정 마련돼야

빛가람혁신도시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김세린(여·31)씨는 지난달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시립테니스장에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테니스 동호회 단체로부터 불쾌한 일을 당했다. 김씨는 남편과 함께 시립테니스장을 방문해 테니스를 배우던 중 테니스 코트 자리가 딱 차차 30여명이 넘는 단체인 동호회 회원들이 “충분히 치신 것 같은데 가시는 것이 어떻느냐”며 시비를 걸고 강제로 코트까지 침범해 다녔다고 한다. 김씨는 “나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공시설이고, 이용 제한 시간이 지나지 않는 선에서 먼저 치고 있었는데 순서를 지키지 않고 새치기 한 격”이라며 분개했다.

권인혁(42)씨도 빛가람혁신도시 시립테니스장을 방문한 지난 2년여 간 수차례 자리없음, 코트 중복 사용 등에 시달렸다. 테니스 코트 수는 한정적인 반면 이용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권씨는 직장 동료들과 단체로 이용해 온 만큼 코트를 두고 시비는 걸리지 않았지만 종종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등 운영적인 측면에서 불편을 호소했다. 권씨는 “도시 내에 공원 외 별다른 체육시설이 없다보니 그나마 인프라가 많이 갖춰진 테니스로 사람이 몰리는데, 명확한 이용 수칙이나 예약제 같

은 이용 편의를 위한 규정들이 없다보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생활 체육 종목으로 테니스가 인기를 끌면서 도시 내 한정된 자원인 시립테니스장 코트를 두고 이용자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본사 부지 내에 테니스 코트를 마련하고 민간에서 테니스 아카데미, 실내 테니스장들이 문을 열면서 테니스 열풍이 불고 있지만, 유독 나주시립테니스장만 예약제가 아닌 자율 이용 방식으로 운영돼 동호회 회원과 개인 이용객간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나주시와 빛가람혁신도시 주민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시립테니스장의 테니스 코트 수는 5개로, 최근 5년 새 오픈톡 등을 활용한 대규모 동호회가 급증하면서 개인 이용자와 자리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 실제 오픈톡에서는 많게는 70여명, 적게는 20~30여명이 참여하는 빛가람혁신도시 테니스 동호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시립테니스장 개인 이용자들은 지역 커뮤니티, 나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형 동호회 회원들이 상습적으로 코트 선을 넘어오거나 이른바 ‘자리 뺏

기’ 등을 일삼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혁신도시 내 대형 동호회 관계자는 “시립테니스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민폐행위는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인 이용자들은 시립테니스장 내 잦은 갈등의 주 원인으로 예약제가 아닌 자율 이용방식을 꼽고 있다. 실제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들은 테니스장을 모두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전은 6개 테니스 코트를 상시 예약 가능하도록 했고, 한국농어촌공사도 지역민들의 예약을 받고 테니스 코트를 개방하고 있다.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화·목요일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수·토·일요일 등 여가 활동 수요가 많은 주말에는 시민들의 예약을 받고 있다.

문제는 나주시가 체육시설 이용 예약을 받는 대상에 해당 시립테니스장만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주시는 공식 체육시설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족구장,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시설의 예약을 받는 등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빛가람혁신도시 시립테니스장은 공원 내 체육시설, 즉 공원시설로 분류돼 예약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립테니스장 예약제 운영에 대한 수요는 이미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시민들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시설의 목적인 만큼 별도의 운영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올림픽 열기 타고…K-푸드, 밀라노 사로잡다

aT, 트랩 활용 래핑 광고·K-푸드 팝업 바 등 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맞아 전 세계의 올림픽 방문객을 대상으로 대규모 소비자 체험 홍보 행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활용해 유럽 소비자들에게 K-푸드를 알리고, 현지 미식 문화와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밀라노의 시내 대중교통 ‘트랩’을 활용한 래핑 광고로 시작했다. 트랩에 김치, 비빔밥 등 대표적인 K-푸드 12종 일러스트와 QR코드를 부착해 행사 정보와 온라인 구매정보 등을 알리는 방식이다.

본격적인 올림픽 기간에 접어들면서 지난 6일부터는 밀라노 중앙역 내 유명 푸드마켓인 ‘메르카토 첸트랄레’에서 K-푸드 팝업 바를 운영하고 있다. 팝업 바는 현지 셰프 프랑코 부지즈넬리와 한국의 구선영 셰프가 협업해 김치 굴 요리, 된장 크림 참치요리, 김치 참치 타르트 등 한국 발효식품을 재해석한 퓨전 메뉴를 선보인다.

또 유명 바텐더 디에고 페라리가 소주와 복분자주를 바탕으로 개발한 ‘코리안 마티니’ 등 창의적인 칵테일을 소개하고, 이탈리아의 초저녁 시전주 문화인 ‘아페리티보’에 착안한 K-푸드 체험 공간을 마련해 이강주, 송승주 등 다양한 한국 전통주를 현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파 지속에…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량 갱신

한국전력거래소는 10일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량인 8만 8950MW(메가와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겨울철 최고치인 2022년 12월 23일 9만 4509MW에는 못미치지만, 올겨울 최고 기록인 지난 2일 8만 8618MW는 뛰어넘었다.

이번 전력 수요량은 지난해 12월 초 정부합동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에서 발표한 기준수요 전망치(8만 8800MW)와 비슷한 수준에 달했다.

전력수요량이 급증한 것은 지난주부터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됨에 따라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수요가 늘어난 데다, 한반도 남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는 등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기준 공급 능력은 10만 26MW이었고, 최대 수요량 8만 8950MW, 예비전력 1만 1076MW로 예비율 12.5%를 기록했다.

전력거래소는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정부와 최대전력수요를 전망하고, 대책기간 중 100GW(기가와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불어 추가적인 한파 또는 폭설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8.8GW 규모의 예비자원도 준비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농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4월 9일까지…10개 기업 선정 최대 2억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오는 4월 9일까지 농기자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국내 기업의 제조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수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지원한다.

스마트 공장이 농기자재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

까지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최소 비용·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지능형 공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원 사업이 농기자재 분야 제조 과정의 효율화, 상품성 제고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 동물용 의약품, 종자, 시설자재 등을 생산하는 농산업 분야 제조기업이다.

공사는 1차 모집에서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도입하고 이와 연동

되는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2억 5000만원 내에서 2회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농식품부의 ‘농산업 수출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통해 선정된 기업들은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등 수출 지원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4월 9일 오후 5시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DN, 전통시장서 설 명절 장보기 행사

한전KDN은 “지난 9일 나주목사고를 전통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 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구입한 물품들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김문호 한전KDN 상임이사 등 경영진과 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 구매한 식재료와 생필품은 지역 소재 3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한전KDN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14개 사업소에서도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소 소재 지역 여건에 맞는 소비 촉진과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방침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정부 정책인 균형발전을 위해 본사가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며 실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성을 담보하는 실천 활동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안정적 소비구조를 완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중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을총수상 상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해당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명 : 을총수상 상호 태양광 발전사업

• 위 치 : 전남 여수시 을촌면 신통리 863-1 인근 공유수면 (을총 용복합 물류단지 및 여수공항 사이 수로)

• 면 적 : 1,850,000㎡ (소요면적: 96,851㎡)

• 설비용량 : 총 용량 19.8MW

• 사업개시 예정일 : 2029년 1월

• 사업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일부 변동 있을 수 있음.

2. 신청자

• 신청인 : (유)을총수상 상호 대표이사 김오남

• 최대주주 : 김세진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간

• 의견제출방법 : 자유양식으로 우편,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제출

- 우편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1로 204, 201호 유한회사 금덕

- 전화번호 : 061) 686-3010

- E-mail : expc7624@hanmail.net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을총수상 상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해당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명 : 을총수상 상호 태양광 발전사업

• 위 치 : 전남 여수시 을촌면 신통리 772-1 인근 공유수면 (을총 용복합 물류단지 및 여수공항 사이 수로)

• 면 적 : 1,850,000㎡ (소요면적: 96,851㎡)

• 설비용량 : 총 용량 19.8MW

• 사업개시 예정일 : 2029년 1월

• 사업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일부 변동 있을 수 있음.

2. 신청자

• 신청인 : (유)을총수상 상호 대표이사 이기오

• 최대주주 : 이기오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간

• 의견제출방법 : 자유양식으로 우편,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제출

- 우편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1로 204, 201호 유한회사 금덕

- 전화번호 : 061) 686-3010

- E-mail : expc7624@hanmail.net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을총수상 상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해당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명 : 을총수상 상호 태양광 발전사업

• 위 치 : 전남 여수시 을촌면 신통리 197-3 인근 공유수면 (을총용복합물류단지 사이 수로)

• 면 적 : 1,850,000㎡ (소요면적: 96,851㎡)

• 설비용량 : 총 용량 19.8MW

• 사업개시 예정일 : 2029년 1월

• 사업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일부 변동 있을 수 있음.

2. 신청자

• 신청인 : (유)을총수상 상호 대표이사 임용욱

• 최대주주 : 임용욱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간

• 의견제출방법 : 자유양식으로 우편,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제출

- 우편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1로 204, 201호 유한회사 금덕

- 전화번호 : 061) 686-3010

- E-mail : expc7624@hanmail.net

조직변경공고 (개인 → 법인)

본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조직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기존 개인사업자

• 상호 : 주주엔지니어링

• 대표자 : 김 덕 기

• 사업등록번호 : 416-01-39236

• 사업장 소재지 : 전남 광양시 세미광길 10(광명동)

2. 변경 후 법인

• 법인명 : 주주엔지니어링주식회사

• 대표자 : 김 덕 기

• 사업등록번호 : 744-87-03883

• 법인등록번호 : 204611-0007886

• 총무 : 배진만 및 전기 자문(배민 제조업)

• 사업장 소재지 : 전남 광양시 세미광길 10(광명동)

3. 조직변경 내용

기존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계속성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주주엔지니어링주식회사”로 법인 전환 되었으며, 사업목적, 주요자산, 인력, 거래처等は 2026년 1월 14일부터 신법 법인에 포함 승계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주주엔지니어링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덕 기

분할 합병 공고

주식회사 라이프프기공(갑)과 주식회사 명진(을)은 2026년 2월 9일 각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하며, 합병 제530조의9 제2항의 결의절차를 밟아 출자제한 이외의 제규는 연태합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결의하임으로써 이 분할합병에 이르기 있는 제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내에 관제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지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지기 바랍니다.

1. 양도대상 전산설비의 종류 : 전기공사업(예 광주01379호)

2. 양도예정일 : 2026년 3월 12일

3. 양도(합병)하는 회사

주식회사 라이프프기공

공동대표이사 사채석, 공동대표이사 장인태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6호(수강동, 계림오피스텔)

4. 양수인(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주식회사 명진

사내이사 이원섭

장기도 안성시 광명면 동향동단길 8 가동 301.3호(광명리)

2026년 2월 11일

“갑” 주식회사 라이프프기공

공동대표이사 서 세 석, 공동대표이사 장 인 태

“을” 주식회사 명진

사내이사 이 원 섭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4년

광주일보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교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